

재림 기도인

연합회보 2018 1

Prayer Coalition Newsletter - Issue 126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응답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13)

사진: 전종범

2018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기대도 있겠으나 첫 달을 보내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사람들이 우려할 만한 일들도 많아 보입니다.

며칠전 미국 핵과학자 회보(Bulletin of Atomic Scientists)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 종말을 경고하는 지구종말시간이 자정 2분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0초 앞당겨진 것에는 급진전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등 변화가운데 있는 한반도 상황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핵 과학자들이 종말시계 시간을 어떻게 정하든, 북한의 핵의 개발과 그에 따른 미국의 판단이 어떠한지 관계없이 지구 종말의 시간은 앞으로 일어날, 이미 제시된 예언적 사건들에 의해 결정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세상의 무지와 무관심에 안타까워 합니다. 참으로 사망감을 갖게하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다른 방향의 두 무리

얼마전 과정공부 시간에 반생 중 한 분이 기독교가 아닌 세상의 종교들이 하나님께로 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단에게서 나왔는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분에 질문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에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낸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진리에 대해 우리교회가 믿는, 구별된 선지자를 통한 이해에 대한 거부감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존재하는 성경의 여러 이해와 해석들을 고려할때 예언의 신에 강조된 것이 반드시 진리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에 확신을 갖고 말한 것에 대하여 이해할수 없을만치 큰 거부감을 나타내었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받아 들이기를 거부하는,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무난한 가르침에 만족하고자 하는 이 시대 교회상을 얼핏 보는것 같았습니다. 함께 신앙하는 교회안에서 지금의 믿음과 신앙 생활의 차이가 어느 순간에 확연히 다른 방향의 두 무리로 갈라지게 하지 않을까 우리가 염려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사상과 행동의 양극화는 어느 국가와 사회에 언제나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전 있었던 대총회 여성 목회자 안수 문제로 인한 갈등도 언제부터인가 북미주의 합회와 교회들, 교인들을 이분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 절박한 위기감이 없는 때의 한시적 분리일 것입니다. 여성 목회자 안수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의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 (계 14:7)는 일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때인것에 주의하지 않는것, 우리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것의 중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중국에 사람들을 각 다른 길로 가게 할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마지막 시대 기별의 핵심에서 벗어난 문제로 교회안에 갈등이 계속되는 상태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논쟁하는 사람들 서로의 반감보다 문제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일에 결국 연합하지 못할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진리안에 연합

세상에서 전통적인 기독교 교과뿐 아니라 타 종교까지 포용하고 연합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인간적인 화합을 위해서 서로 다른 부분을 무시하거나 축소하고 공통된 부분을 강조함으로 이루는 연합입니다. 근래에 와서 더욱 현저한 교회 일치주의 운동이 기초한 사상입니다. 사랑과 용납이라는 구호아래 연합을 이루려 하지만 아무리 인간적으로 바람직해 보여도 절대적 진리를 외면하고 차이와 갈등을 덮어 버리는 타협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눅 12:51-55)

그러나 진리안에 연합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늦은비 성령의 큰 역사가 있기전, 이천년 전에 그러했듯이 믿는 이들의 연합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구호나 인간적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신실히 따르는 것의 결과로 얻는, 믿는자들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능력으로 믿음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기를 위해 노력하는 그 연합은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연합을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것은 영적 건강, 고상한 사상, 고결한 품성, 하늘에 속한 마음을 가져다주고, 이기심과 악한 추축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대들을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른 사람들을 그대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리하면 그대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대들은 하늘 우주 앞에서, 그리고 교회와 세상 앞에서, 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여 줄 것이다. 그대들이 보여주는 모본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9 증언 188)

진정한 연합은 특정 주제의 성서적 이해나 해석에 따르는 것보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이 아닌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순종에 따르는 겸허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따름으로 이루어진 깊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어떤 교리상의 차이를 떠나 중국에는 교회에서 두 무리로 가르치게 하는 분기점을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연합

지난해 우리는 2017 국제재림기도인연합 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때 뿌려진 말씀과 함께 기도한 영적 감동의 씨앗이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믿음의 씨앗으로 발아 되고 성장하여 큰 영적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모임이 있기전 이번 성회가 알려지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도 교회내에 있었으며 모임후에 믿음의 결속을 방해하는 것도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과 임원들의 연합에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과정에 치밀하게 역사하였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연합은 서로에게 용기가 되지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의 감동을 나누는데 연합하는 것입니다. 진정 다시오실 주님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과 참 신앙을 실천하고 그 경험을 나누는 노력을 할때 우리가 진정한 연합을 이룰것이며 그 연합은 서로에게 결과적으로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연합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를 완전히 믿고, 그 교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때, 우리의 대열에는 행동의 일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황금 띠가 형제와 형제를 묶어 주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 연합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분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 그분과 연합됨으로써 그들은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서로간에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이 연합을 위하여 노력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8 증언 243)

흔들림의 때 함께 하는 말씀과 기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교회내 예견된 흔들림은 울 것입니다. 아니 이미 시작된 그 흔들림에서 잘못된 이론과 가르침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많은 이들을 낙오할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4-15)는 절개의 외침이 마지막때 믿는이들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의 정책이나 법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영향으로 교회내 만연해 가는 세속화 역시 우리가 그 정도를 가늠할수 있습니다. 교회내에 뿌려진 거짓 이론들—성소와 삼위일체 사상등에 관련된 그릇된 이론들 역시 말씀과 예언의 신에 의거하여 우리가 구분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안에서 말씀에 기초한 증언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에 우리가 당혹해 하기 쉽습니다. 그럴지라도 예견된 기도를 통한 영적각성 운동에 대한 교회내 거부감과 무관심이 우리에게 장애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여된 시간이 한정되었기에 더욱 열정으로 말씀과 기도의 정신의 확산을 위해 진력하여야 하겠습니다.

1857년 11월 20일,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강한 믿음과 괴로운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고민하여 간구하는 이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을 나는 보았다. 그들은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것 같았다. 그들이 주위에 있는 흑암을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흑암은 짙은 구름처럼 그들을 가두어 버렸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사람들을 떠나서 전력을 다하여 악한 천사들을 저항하고자 투쟁하고 있는 자들, 인내로써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들 스스로를 돕고자 애쓰고 있는 자들을 도와 주기 위하여 급히 그들에게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천사들은 스스로를 돕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자들을 떠나갔으므로, 나는 그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열렬히 부르짖고 있는 동안, 예수께로부터 나온 한줄기의 빛이 때때로 그들에게로 와서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비추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뜻을 물어 보았다. 그러자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참된 증인의 권고에 의하여 들려진 바른 증언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될 것임을 보았다. 이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에 효력을 나타내게 되고, 그로 하여금 표준을 높이고 솔직한 진리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일어나서 이 증언을 반대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흔들림을 야기할 것이다. 참된 증인의 증언은 절반도 유의되지 않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린 엄숙한 그 증언이 완전히 외면당하지는 않았지만 경솔히 여김을 받아왔다. 이 증언은 깊은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데, 그 증언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정결해질 것이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338-339)

주님의 오실 날이 더욱 가깝습니다. 언제나 셋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 까지 (벧후 1:19), 생명의 말씀 연구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할 것입니다. 교회내 흔들림 가운데서 실천하는 믿음에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 기원합니다. 마라나타

한규형 / 기도인연합

기도인연합 2018년 1월 정기모임 소식

사회: 정동춘 장로님

첫기도: 김만장 장로님 (서울남부)

2018년 1월 정기모임은 회원들 모두 새해 인사를 나누며 정동춘 장로님 사회로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성회 참여 회원 간증: 메리 엘

다리가 몹시 아픈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처음으로 이러한 기도회를참여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회에 참여하는 동안 발마사지 선교사들로부터 마사지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아픔이 없어졌다는 간증과 강사들의 말씀과 이 기도회를 통해 얻은 기도에 대한 태도와 기도생활이 달라졌으며 이번 성회에서 얻은 지식을 삶에 실천 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엄영대 장로님: 인도 선교 보고- 한 달동안 선교 중에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당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며 자세한 내용은 기도인연합 회보에 실린 선교보고를 참고하시길 바라고 기도회 회원들의 기도에 감사했으며 앞으로도 계속되는 인도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 기도부탁을 했습니다.

김만장 장로님: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고하셨습니다. 삼육지역사회 봉사회가 서중안 합회 협조로 전국 보건복지부 단체에 등록 재림교인 40인이 봉사에 참여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인 자세로 봉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성선제 목사님: 일본연합회 개최 전국 목회자 수양회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성령과 기도에 대한 주제로 개최중, 2018년 마라나타 전도회가 5월에 160곳에서 대 전도회가 동시에 개최되는데 준비하는 일에 기도회원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유재상 목사님의 연합기도회 대표 기도가 있었는데 연합 기도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의 기도
 - a. 한국 의사 국가고시 시험일이 안식일에서 다른날로 변경
 - b. 오아시스 세계 선교회 4 주간 인도 전도집회
2. 교회와 성도들이 늦은비 성령을 위해 준비되도록
 - a. 2018 년 시작되는 각 지역별 말씀 연구와 기도회
 - b. 성령을 구하는 연합 기도운동의 세계적 확산을 위하여
3. 한반도를 위한 기도
 - a. 북한에 하나님의 섭리로 재림기별이 속히 전파되도록
 - b. 평창 동계 올림픽 (2 월 9-25 일) 이 기간중 봉사과 전도활동을 위해
4. 10/40 창의 비 기독교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모든 지역에 재림기별이 속히 전파되도록

최석근 장로님 말씀봉독: "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9-13)

모든 참여자들의 그룹기도가 끝난후 노귀환 목사님 (샌디에고)의 끝기도로 1 월 연합기도회를 주님의 은혜로 마쳤습니다.

(글: 류복례)



2017 국제재림기도인연합 성회 참여 간증

메어리 엘 (M.L.) / 미국 남가주 기독교회원

2017 국제재림기도인연합성회에 참여 경험을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처음으로 참여했었는데 처음 성회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가 가능하게 해주셔서 제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회 참여하는 동안 여러 놀라운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 도착했을 때, 나는 함께 온 친구들에게 배정된 방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의 짐을 가져왔는데 어떤 이유인지 열쇠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래 쪽 방의 문을 열려있어서 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문을 여는 방법을 보여 주었는데 문이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배당된 키를 사용해 봤는데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 새로운 친구들은 일본에서 왔는데 당시 나는 그들이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이었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대화가 잘 되었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내가 사용한 첫 번째 키는 잘못 배정된 열쇠인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순서의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5 시 30 분이면 깨우셨고 제 다리에 통증이 있었는데 아침 예배후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사지 하는것 아는 사람이 있을수 있겠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디에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돌이켜보니 한 사람이 있어 물어보니 아침 등록실에서 마사지 하는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마사지는 제가 전에 받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발의 고통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날 성회 순서에 은혜를 받았는데 전날 마사지 봉사하던 분들이 그 날 정오에 다시 봉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게 도움이 되었기에 다른 분들에게도 이 훌륭한 것을 경험하도록 소개하였습니다. 마사지 기술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곳 봉사자들 중 한 분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발 마사지 봉사가 선교의 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을 통하여 한 선교봉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닦으신 것에 기초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처음 시작하신 분을 통해 6 천번의 봉사를 하시게 축복하셨습니다. 4 개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들의 전도회를 발 관리 봉사를 통해 또한 가르치며 돕게 하셨습니다.

이번 국제재림기도인연합성회는 여러면에서 특별한 집회였습니다. 강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신 마음에서 울어나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기도 생활을 변화시킨 깨달음과 여러 다른 기도의 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펼쳐 버려야 할 무술 — 이것이 하나님으로 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풍수설 같은 것도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 지금도 이것을 멀리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냉전 기간동안 하나님께서 구소련의 KGB 아래 재림교인들을 축복하셨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지내온 여러 시험과 기적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게 이 경험을 함께 나눌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It is an honor to share my experiences of the 2017 International Adventist Prayer Convention with you. This was my first time attending the International Prayer Conference. When I first heard about it, I asked God to help me to attend this conference if it was His will. God Made it happen that I was able to attend. I had many wonderful experiences while I attended this conference.

The first night when I arrived, I was unable to open the door to the room that was allotted to my friends that I had come with. I was bringing in their baggage and for some reason the key did not unlock the door. I saw a door open down the hall and asked if they could show me how to open the door. They came out and showed me how to open the door, and it still did not open. Then I tried another key that was allotted to my friends the way I was being shown how to open the door. That key opened the door. My new friends are from Japan and at the time I did not know that

they were deaf. We communicated so well. I was amazed. It turned out the first key that I used was given to me by mistake.

I loved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and I chose not to miss any of the program. God woke me up at 5:30AM each morning. I needed to get up early so that I was able to walk where the morning worship was held. I had problems with pain in my legs, as they had gotten stiff, so I walked slowly. After morning worship and we had separated for classes I started talking to God about the pain in my legs as it had not gone away. I asked God, "Please help me with the pain in my legs and take it away." Then God reminded me that there might be some one that did massage therapy. I asked God, "How do I find out? Who can help me?" God answered, "Just Ask." When I turned around I saw only one person (everyone else was in the next class) "Do you know anyone that can help me?" He told me to go up to the registration center as they were going to be doing foot massages. I went. When I received my foot massage it was different from any I had experienced before. When I got off the massage table I could walk with less pain. The pain in my legs was reduced by half.

The following day I enjoyed the conference program and I was told that the group of people that were doing the foot massages the day before, would be doing it again at noon that day. As it had made a great difference to me, I encouraged others to come and experience this wonderful technique of the foot massage. I also had some questions about the foot massage technique. During the time I was getting another foot massage I was able to speak with one of the individuals involved. I learned that this was a mission. That it had started out as a missionary service through humility. Based on the concept of Jesus washing His disciples feet. God Has blessed this mission in that the originator has massaged over 6,000 feet. Traveled to 4 countries massaging peoples feet and telling of God's love. Assisting evangelistic opportunities with churches by doing foot massage and teaching others how to do it. At the end of this massage my pain was all gone.

This International Adventist Prayer Convention was special in so many ways. The speakers shared from their hearts the messages that God gave them to

share with us. I brought back knowledge with me that changed my prayer life and my understanding of different ways of praying. From Eric Wilson I learned that martial arts was not God oriented, and that had to be prayed away in a specific manner. As a result I learned to recognize other things that were not God oriented, such as feng shui. I am still learning how to pray this away. I learned about how God blessed SDA people in KGB Russia during the cold war. I learned about the many trials and miracles that people of Korea and Japan have faced. This was very special experience. I thank you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share it with you.

한국 종교 자유와 평등 기회의 모임 보고서

김윤환 / 종기모 총무

안녕하세요. 그동안 미국에서도 한국종기모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기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동안 종기모에서 진행한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2017 년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이 1 차시험 4/8 토요일 , 8/5 토요일로 2 월경에 교육청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한국 교단내에 있는 대안학교에 연락을 취한후, 각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각합회의 종교자유부 부장님이 같이 각교육청에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종기모에서 각 카카오톡 탄원방에다가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추가적으로 부탁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발한 도움과 기도로 검정고시 2 차시험이 8/5 안식일에서 8/9 수요일로 변경되었고, 8/9 일에 재림신앙을 지키는 학생들 모두가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11 월 4 일 에 개인적으로 동성학교에 가서 순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학생, 선생님들과 같이검정고시가 안식일에서 평일로 옮겨진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로, 지난 8 월에 대총회 주최로 플로리다에서 열린 “세계 종교자유 모임 포럼”에 한국 종기모측에서 대표로는 최혜연양, 서은혜양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두 학생은 작년 2017 년 의사국가고시를 미응시한 3 명의 학생중에서 2 명입니다. 그리고 한국연합회에서는 연합회와 각합회에 종교자유부장님이 같이 참석 하였습니다. 같이 참석해서 한국의 종교자유의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포럼에 참석한 외국인기자, 인권운동가 분들이 한국의 실태를 믿지않았지만, 종교의 문제로

의사국가고시를 보지 않은 이야기, 의과대학교를 다닐 때 안식일 시험문제로 성적과 학교생활에 불합리를 받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UN 에서 온 인권담당자에게도 한국의 실상에 관련된 자료들을 전달하고, 이에대해서 UN 에가서 이야기하겠다는 확답도 받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셋째로, 지금 저희 종기모에서 가장 신경쓰고있는 부분인 “한지만군 재판”입니다.

한지만 학생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지만군은 삼육대 약대를 졸업하고,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본과 1 학년이고, 1 학기 중간고사 해부학 시험부터 여러 시험이 안식일에 잡혔습니다. 이에대해서 학교측에 양해를 구하고 옮겨달라고 부탁드렸으나, 경북대에서 이를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그이후에 끊임없는청원, 국민신문고 민원, 국가인권위원회에 행정소송까지 했으나, 경북대에서는 안식일 시험을 옮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 심 3 차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각성도님들이 후원하신 금액과 저희 종기모에서 후원한 금액으로 한지만군의 변호사 선임비로 1026 만원가량 지원했습니다. 그결과 재판 1 심 첫째판 승소는 했지만, 이게 확실히 재판에서 승소한다는 내용은 아니였고, 추가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경북대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법원에서 통보도 갔습니다. 법원에서는 한지만군이 합당한 이유로 피해를 받고 있고,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1 심에서 경북대는 승복하지않고, 추가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심 2 번째 재판에서는 법원에서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 1.안식일에 시험을 안보는게 개인적인 신앙인지? 교리인지?
- 2.교리라면 그동안 다른 경북대 학생들은 안식일에 시험을 왜봤는지?
- 3.다른대학에서도 안식일에 실시하는 시험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첫번째 대답은 재림교회의 교리라는 것을 삼육대 신학과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교리를 정리해서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두번째 대답은 교리는 맞지만, 그걸 지키는건 개인적인 신앙이고 자유라고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증인 교인들도 모두 짐중거부, 수혈 거부를 하는건 아니라고 전달했습니다. 세번째 대답은 다른학교에서도 안식일 시험이 문제가 된경우에 대한 학교측에 공문을 요청해서

서남대의대, 충북대의대, 서울대의대, 연세대치대에서 각각 공문을 법원으로 발송했습니다.

이후에 1 심의 3 번째 재판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지만 재판” 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면, 그동안 한국에서는 안식일 시험을 평일이나 일요일로 옮기는건에 대해서 법원소송에서 한번도 승소한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지만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재판이기에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이 승소하면 중기모가 준비하는 다른 여러 소송과 시험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중기모가 원활한 활동을 하기위해서, 법인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모 이름으로된 통장도 만들어서 후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열심히 활동하는데 쓰고있습니다. 혹시 여유가 되시면 중기모 후원인이 되셔서 매달 소액이라도 후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달에 3천원, 5천원씩 매달 후원해주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멀리 타국에서도 많은 기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참여 보고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된 동기와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2016 년 8 월부터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모집을 시작했는데 예상외로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바람에 예정보다 앞 당겨 그해 11 월에 마감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약 5:1 의 경쟁을 보였다고 조직위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소간의 힘든 난관도 없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삼육지역사회봉사회’라는 서중한합회가 정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NGO 단체이름으로 올림픽조직위원회와 정식 MOU 를 체결하고 자원봉사자를 선발을 해서 40 명이 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번의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에 참여할 때 마다 타 교단에서는 수백명씩 팀을 구성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인으로써의 본을 보이며 교회 이미지를 재고하는 것을 보면서 아쉬움을 갖고 있었던 터라 이번 일은 제 개인에게도 기쁨과 보람은 물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요번 평창동계올림픽에는 95 개국에서 5 만명, 패럴림픽에는 45 개국에서 3 천여명이 참여게 되며 이를 위하여 2 만 2 천사백명의 자원봉사자가 일곱개분야 17 개 직종에서 백여가지가 넘는 직무를 부여 받아 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 3 월에는 테스트 이벤트로 개최하는 세계스키대회에 참여하여 도핑 테스트 관리분야에서 2 주 동안 봉사하며 경험을 쌓는 기회도 갖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2017 년 6 월 3 일부터 4 일까지 2 일간 총 10 시간의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우리 서울 대방동재림교회에서 삼육지역사회봉사회 소속 자원봉사자는 물론 한진관광 외 5 개 단체의 자원봉사자들 230 명이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삼육지역사회봉사회에서는 정성스럽게 차와 다과를 준비했고 서중한합회와 대방교회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은 우리 교회를 알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17 년 6 월 15 일 한 모임에서 만난 평창동계올림픽 이회범조직위원장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맡은 직무에 따라 입촌기간이 좀 다르지만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는 보통 1 월 말부터 2 월 3 일안에 입촌해서 직무교육을 받고 2 월 9 일 시작되는 경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동계올림픽만 참가하는 봉사자는 2 월 26 일 경 임무가 마치며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봉사자는 3 월 초에 입촌하여 3 월 20 일경 까지 봉사를 하게 됩니다.

대회기간 동안 숙식은 물론 파커를 포함한 상의 세벌, 하의 하나, 방한화, 장갑, 모자, 스왑치 시계까지 지급되며 주 5 일 근무하고 2 일 쉬는데 휴무때는 자기가 보고싶은 경기를 관람하거나 집에 다녀올 수도 있고 담당 매니저하고 사전에 상의하면 교환근무가 가능하므로 안식일 문제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봉사자들이 강릉 올림픽 파크내에 있는 컬링실내경기장 내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강릉동부교회나 남부교회가 차량으로 10~15 분 거리에 있어서 교회 출석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우리 재림교단에서는 국가가 개최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에 처음으로 단체로 등록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됨으로 이를 계기로 안으로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대총회에서 세계적으로 벌리고 있는 TMI 운동의 촉진제 역할이 될 뿐 아니라 밖으로는 우리 재림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비롯하여 참여하는 봉사자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로서의 모범적인 봉사를 하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좋은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동계올림픽 시설사업분야 전기부분에 참여하여 공사를 하시는 장로님의 주선으로 우리 교인들로 구성된 발마사지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설상경기장 외곽 한 건물의 공간을 대여 해서 올림픽 기간동안 오시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발마사지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인근의 대관령 교회에서 숙식을 지원 받아 교대로 봉사를 할 것 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이웃, 따뜻한 사람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현황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인연합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고자: 김만장 (서울남부교회 장로)

2017 평창동계올림픽 삼육지역봉사회 자원봉사자 단장
발관리 지도자 (FOOTCARE MANAGER) / 족부크리닉
전문강사

2017 국제재림기도인 연합성회 설교문 (III)

공기 역학의 법칙에 대한 영적 중요성

세볼드 안드류삭

나는 영적 삶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제안합니다. 성장과 발전을 포함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

10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 1:10)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5)

1. 개발, 성장 및 변동은 자연 현상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세계와 영의세계에서 인지되어 집니다. 각종 식물은 썩어나고 성장합니다; 인간도 태어나 성숙함에 이릅니다. 사람의 영적 경험도 성장과 진보처럼 보여 집니다.

A.식물의 성장과 진전의 사례:우리집에 작은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야채 키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잇따라 일어나는 현상을 살핍니다:씨앗을 심고 꽃이핀후 작은 푸른 과일이 생기며 가을에 그 과일이 빨강 혹은 노란색이 될때 그 과일을 추수합니다.

B.사람의 성장과 발전의 사례:

부모들은 어린아이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살핍니다; 신장과 체중을 재고; 일반적인 발달에 따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미소짓고 말하는지 등등. 어느때 어떤 소리를해야 하는지; 만약 아이가 한살 육개월인데 첫 발걸음을 딛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며; 아이가 세살때까지 어떤 말들을 배우지 않고 적어도 어떤 단어들을 발음 할 수 없으면 이것 또한 정상적인 발달이 아니라고 간주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건강한 경험은 성장을 필요로하며 성장은 자연의 법칙에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하며, 신체의 기관들은 그들의 작동에 방해 받지 않는 건강한 상태로 유지 되어야 한다.” (원고 47,1896)고 말했습니다.

C. 이것은 특히 영적 삶과 크리스천으로 나아가는 것의 특성입니다.

“모든 기회, 모든 우월, 모든 특권은 우리에게 풍부한 그리스도인 경험을 얻기 위해 주어졌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단번에 배우지는 못합니다. 성장이 있어야합니다.”(원고 85,1901 BC6,1075)

G.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증진합니다:

3“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후 1:3-4)
죄있는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자들” 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렵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D. 성경은 자연 현상과 영적 기독교 생활의 유추를 이끌어 냅니다.

26“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30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31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막 26-32)

E. 불행하게도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권고했습니다:

- 1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 2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 3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고전 3:1-3)
- “모든 선한 의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영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끕니다.” (절제 253)
- “성장의 각 단계에서 우리의 생애는 완전할 수 있고 게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 할 것이다.”(새자녀지도법,162)

2. 성경에서 사용되는 법

우리의 세계와 우주의 모든것은 창조주께서 제정한 법에 따라 운영합니다.

자연의 법들: 육체적 삶과 영적인 법들.

인간은 우리의 세계가 존재하는 많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것들을 확립하지 않았고, 다만 그런 법칙이 발견되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물질적 세계에서 작용하며 과학자들은 그것들을 다룹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삶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인 법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 여러 가지 영적 법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법들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세 법인데 1.하나님의 법 2. 죄의법 3. 성령의 법입니다.

1.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두 부분으로 되어있는데 첫부분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고 둘째 부분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분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법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기술적 진보는 자연의 다양한 법칙을 발견 한 후에 가능했습니다. 기중기는 역학,인력, 그리고 무게 등등의 법칙들을 사용합니다. 항공기는 공기 역학과 힘의 본존의 법칙 기타 법칙을 사용합니다.

우주로의 비행 - 무중력 법 등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인간이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신성한 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삶에서 약간의 유형을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은 사랑에 기초한 신의성품을 드러내며, 그분과 함께하는 영생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가질 것이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상에서 행복한 삶으로 인도 할 것이며, 하나님과 하늘의 존재들과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믿음과 행위에 반대하며, 그들의 역할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함께 함을 알게됩니다 - 구원과 칭의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균형 잡힌 견해를 가져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은사의 척도에 따라 생활 해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받지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인 생활을 할 준비가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아내기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모든 것을

읽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이해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성숙으로 자라갑니다. 좋은 본보기는 자연에서 옵니다. 우리는 성장과 발전을 봅니다. 당신이 토양을 비옥하게 하면 식물은 더 잘 발육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건강은 적절한 건강한 생활 방식을 따르므로 건강 해지고 병이 들지 않습니다. 형법을 위반하면 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7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롬 7:7) 12 “이로 보건대 율법도 기록하며 계명도 기록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7:12)

2. 죄의 법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1-2) 죄의 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육체대로 사는 것입니다. 4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롬 8:4-8)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법칙의 본질을 묘사합니다. 7 : 14-24

이 땅에는 선과 악의 투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투쟁의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들의 행동의 한 예입니다.

작은 소년이 다른 소년을 때리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물으면 왜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죄의 본성에서 온 것을 압니다.

3.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의 작용은 무엇입니까?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1-2)

성령의 법은 어떻게 밖으로 나타납니까?

5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8:5-6)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롬 8:9-11, 14)

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냅니까? 6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 4:6)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 5:16-17)

두법의 상반: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그러므로 성령의 법은 기독교인이 죄의 법의 경향을 극복하도록 돕는 법입니다. 죄의 법은 이세상의 매력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지상의 죄와 육신의 삶으로 끌어 당깁니다.

옛날 사도 바울과 오늘 우리는 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 끌어당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육체와 영의 법을 비교합니다.

전에, 버논리 형제들은 공기 역학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현재는 그 원칙에 따라 다양한 항공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비행기를 타고 1.5 시간 안에 1000 마일을 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차로는 하루가 걸립니다. 항공기의 날개가 위로 볼록하게 되어 공기 이동 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날개의 윗부분의 공기는 같은 시간에 날개의 안쪽보다 더 멀리 가야 하며, 이로 인해 날개의 윗부분의 공기 압력이 감소하고 밑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압력의 차이로 인해, 그것은 지구의 끌어당기는 힘을 극복하는 이른바 들어 올림 힘 / 힘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이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고 들어 올리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적 삶에서 그것은 죄의 법을 반대합니다. 죄의 법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육체에, 죄에로 끌어 내립니다. 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2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롬 7:19,22,23)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행을 비교한다는 것을 압니까?

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 40:28-31)

구원 할 수있는 분의 도움이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진리와 빛의 영은 불가사의하게 우리를 부흥하며 새롭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 성장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일꾼을 돕기 위해 신성한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진정한 부흥 43)

우리는 여전히 이 지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과 악의 전투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이 세상과 죄된 삶으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로 죄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법을 지킬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지상에서의 죄된 삶에서 영적이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들어 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 40:28-31)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이 속세의 생활의 매력을 극복하려고 하십니까?

(역: 류복례)



2017 International Adventist Prayer Convention

Sermon No. 3

Title: “Spiritual significance of the laws of aerodynamics”

By Vsevolod Andrusiak

I propose to talk about the issues of spiritual life. About life, which involves growth and development. The Holy Scripture clearly states this:

Colossians 1:10 “so that you may live a life worthy of the Lord and please him in every way: bearing fruit in every good work, growing in the knowledge of God”.

Ephesians 4:15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will grow to become in every respect the mature body of him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

1. Development, growth and movement are natural phenomenon.

This is observed in the physical world and in the spiritual. Various plants appear and grow; man also is born and grows reaching maturity. The spiritual experience of a person and is also seen as growth and progress.

A. Example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plants: our greenhouse. At our home I built a small greenhouse. My wife likes to grow some vegetables.

We watch and follow the development: planting seeds, after we see them flowering, developing small green fruit is formed, when the fruit becomes red or yellow – and at autumn we harvest the fruit.

B. Example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a person: Parents monit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measure height, weight; follow the general

development - how child reacts, responds, smiles, speaks, etc. When and what sounds it produces; if the child is 1.5 years old and does not take the first steps - this is not normal; if the child has not learned any words and cannot pronounce at least some words by the 3rd year - this is also considered as not a normal development.

Ellen White says that " A healthy experience demands growth, and growth demands that careful attention be paid to the laws of nature, that the organs of the body may be kept in a sound state, untrammelled in their action" (Manuscript 47, 1896).

C. This is especially characteristic of the spiritual life and the Christian ascent.

"Every opportunity, every advantage, every privilege, has been given to us to gain a rich Christian experience; but we do not learn everything all at once. There must be a growth" (Manuscript 85, 1901 in BC 6, 1075).

G. God promotes the growth of a Christian:

2 Peter 1: 3-4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we need for a godly life through our knowledge of him who called us by his own glory and goodness. 4 Through these he has given us his very great and precious promises, so that through them you may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ped the corruption in the world caused by evil desires".

It's hard to believe that sinful people can becom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But thus says the Lord!

D. The Holy Scriptures draws an analogy between phenomena in nature and the spiritual Christian life.

Mk. 4: 26-32 "He also said, "This is what the kingdom of God is like. A man scatters seed on the ground. 27 Night and day, whether he sleeps or gets up, the seed sprouts and grows, though he does not know how. 28 All by itself the soil produces grain—first the stalk, then the head, then the full kernel in the head. 29 As soon as the grain is ripe, he puts the sickle to it, because the harvest has come." 30 Again he said, "What shall we say the kingdom of God is like, or what parable shall we use to describe it? 31 It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is the smallest of all seeds on earth. 32 Yet when planted, it grows and becomes the largest of all garden plants, with such big branches that the birds can perch in its shade."

E. Unfortunately, there are Christians who do not grow spiritually. Such people have always been; at one time up. Paul exhorted them:

1 Cor. 3: 1-3 "Brothers and sisters, I could not address you as people who live by the Spirit but as people who are still worldly—mere infants in Christ. 2 I gave you milk, not solid food, for you were not yet ready for it. Indeed, you are still not ready. 3 You are still worldly.

"Every good intention is a gift from God. Faith draws such a life from God, in which true spiritual growth can manifest itself "(Temperance, 253).

"At every stage of development, our life can be perfect, and yet, if God's plan for us is realized, we will constantly grow" (Child Guidance, 162).

2. Laws that are used in Holy Scripture.

Everything in our world and the universe functions according to the laws established by the Creator. The laws of nature: laws in physical life and spiritual.

Man has discovered many laws according to which our world exists. But the scientists did not establish them, they just stated the facts that such laws are discovered and exist.

These laws operate in the physical world and scientists deal with them. But we are Christians, who pay great importance to spiritual life, study spiritual laws that God has established.

In the Holy Scriptures we find that Christian spiritual life operates according to a number of spiritual laws. These laws are mentioned in the Holy Bible. Here are 3 of them: 1-The Law of God, 2-the Law of Sin and the 3-Law of the Spirit.

1. The law of God.

God gave His Divine law. It consists of 2 parts: 1-rules on how to build relationships with God as Creator, 2-rules on how to build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There are some people who do not know about God and do not observe His Law.

And it looks very ridiculous – not keeping the law because you did not discover it. Technical progress was possible only after the discovery of various laws of nature. The lifting crane – using is the laws of mechanics, attraction and weight, etc. The airplane – using the laws of aerodynamics, conservation of power. etc., Flight into space – using the laws on weightlessness, etc.

But God gave His Divine Law so that man would know how to build relationships with (1) God as Creator and (2)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Now we know a certain pattern in the spiritual life.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Law of God reveals the Divine character based on love, and wants to prepare us for life with Him. He shows that if

we become partakers of His Divine nature, we will have a part of His love and we will be able to live keeping His commandments. This will lead us to a happy life here on earth and prepare us for eternal life with God and the heavenly beings.

Speaking of the fulfillment of the Law of God, Christians sometimes oppose faith and deeds, which makes their role meaningless. Studying the Scriptures, we find that faith and action go together - in the understanding of salvation and justification, we need to have a reasonable balanced view.

We should live according to the measure of the gift of faith we received from God. Some people who are not under the guidance of God say they are not ready to live Christian life. They need to figure it out and continue the research, and read everything, and try to understand everything, and then they will do what they understand". But actually Christians start following God's will little by little. Growing to maturity. A good example comes from the nature: we see growth and development.

If you fertilize the soil, the plant will develop better. And in human health follow proper healthy lifestyle, you will be healthy, less likely to get sick. If you violate the criminal law, you will be sentenced and get to prison.

Bible says: "What shall we say, then? Is the law sinful? Certainly not! Nevertheless, I would not have known what sin was had it not been for the law. For I would not have known what coveting really was if the law had not said, "You shall not covet." (Rom. 7,7).

"So then, the law is holy, and the commandment is holy, righteous and good" (Rom. 7,12).

2. The law of sin.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2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who gives life has set you[a]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Rom. 8,1-2).

What is the essence of the law of sin? – t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In order that the righteous requirement of the law might be fully met in us, who do not live according to the flesh but according to the Spirit. 5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e flesh desires; but those wh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e Spirit desires. 6 The mind governed by the flesh is death, but the mind govern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7 The mind governed by the flesh is hostile to God; it does not submit to God's law, nor can it do so. 8

Those who are in the realm of the flesh cannot please God" (Rom.8.4-8).

Apostle Paul in his experience describes the essence of the law of sin in Rom. 7: 14-24.

On this earth there is a struggle between good and evil. Everyone is subject to this struggle.

Life, which is left to downstream, will usually lead a person to live according to the law of sin. We have an example of the behavior of children. A small boy hit another, and is asked why, he says, I do not know why it did it. We know it comes from sinful nature.

3. The law of the spirit.

What is action of the law of spirit? -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2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who gives life has set you[a]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Rom. 8,1-2).

How is the Law of the Spirit manifested? –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e flesh desires; but those wh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e Spirit desires. 6 The mind governed by the flesh is death, but the mind govern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Rom. 8,5-6).

What is the Law of the Spirit? – "9 You, however, are not in the realm of the flesh but are in the realm of the Spirit, if indeed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And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they do not belong to Christ. 10 But if Christ is in you, then even though your body is subject to death because of sin, the Spirit give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11 And if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is living in you, he who raised Christ from the dead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because of his Spirit who lives in you. 14 For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the children of God" (Rom. 8,9-11,14) .

Who sends us the spirit? – "6 Because you are his sons, God sent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the Spirit who calls out, "Abba, Father." (Gal. 4,6).

"16 So I say, walk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flesh. 17 For the flesh desires what is contrary to the Spirit, and the Spirit what is contrary to the flesh. The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so that you are not to do whatever you want" (Gal. 5,16-17).

Counteraction of two laws: the Law of God and the Law of Sin.

So, the Law of the Spirit is the law that helps a Christian overcome the gravitation of the law of sin.

The law of sin is like an earthly attraction, pulling us down to earthly, sinful and carnal life.

Once Ap. Paul and today we ask the same question, How to overcome this gravitation?

Here we find comparison between physical and spiritual laws.

Once, brothers Bernoulli discovered the law of aerodynamics. Today on its principle, various aircraft can be built. Today you can fly by plane a distance of 1000 miles in 1,5 hours. But by train it takes the whole day.

It is known that the wing of the aircraft is convex from above, which increases the distance for the air movement. The air on the upper part of the wing must go a bigger distance than at the bottom of the wing during the same time, which decreases the pressure of air on the upper part of the wing and, accordingly, increases the pressure on bottom. And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pressure, it forms so-called lifting power/force, which overcomes the force of earthly attraction.

But do you know that the Law of the Spirit works in the same way and is a lifting force. In the spiritual life, it opposes the law of sin, which pulls the Christian down to earthly, to the carnal, to sin.

“19 For the good that I will to do, I do not do; but the evil I will not to do, that I practice. 22 For I delight in the law of God according to the inward man. 23 But I see another law in my members, warring against the law of my mind, and bringing me into captivity to the law of sin which is in my members” (Rom. 7: 19, 22, 23).

But do we know that the Word of God compares the Christian life with flying?

“Do you not know? Have you not heard? The LORD is the everlasting God, the Creator of the ends of the earth. He will not grow tired or weary, and his understanding no one can fathom.

”29 He gives strength to the weary and increases the power of the weak.30 Even youths grow tired and weary, and young men stumble and fall; 31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row weary, they will walk and not be faint” (Is. 40, 28-31).

"We are provided with help in the One who is able to save. The spirit of truth and light will mysteriously revive and renew us, for every spiritual growth comes from God, and not from us. The divine power will be given to help the true worker"(True Revival, 43).

We must remember that we still are on this earth. We still are in the battle between good and evil. Satan wants to force us and put us down to this earthly and sinful life. He wants us to follow the law of sin. But God has given us His power to keep the law of Spirit. He gives us the power and lifts us from this earthly and sinful life to spiritual and glorious life. We have His promise: “He gives strength to the weary and increases the power of the weak.30 Even youths grow tired and weary, and young men stumble and fall; 31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row weary, they will walk and not be faint”.

Are you willing to accept His power and overcome attraction of this earthly life?

2017 국제림기도인연합성회 기념 출판 영의 세계와 그 투쟁

김명호 / 기도인연합

제 4 장 성경에 계시한 영들의 싸움 (I)

성경에는 영의 싸움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다. 이미 앞 장들에서 조금씩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좀 더 자세히 그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1. 구약성경에서

이미 앞에서 노아시대 이야기를 했지만 거룩한 영들과 타락한 영들의 싸움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늘에서 쫓겨나 있을 곳을 찾아 유리하는 별들이 되어 우주를 떠돌아다니던 루시퍼 일당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서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도록 창조된 지구가 창조되자마자(창 2:1) 재빨리 지구로 날아들었다. 그리고 여자에게 접근해서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유혹하였다. 이때부터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싸움은 이 지구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아담 부부는 창조주로부터 루시퍼의 타락 사건과 그가 지구를 노릴 것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다.

[우리 최초의 조상은 그들을 위협하는 위협에 대한 경고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에게 사단이 타락하게 된 역사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그의 음모를 미리 알려 주었으며 악의 임금이 전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부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질서와 공평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율법을 아담과 하와가 존중히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였던가!](부조와 선지자 52)

[천사들은 사단의 계교(計巧)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즐기치게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동안에는 악한 자가 저들을 해할 수 없었는데, 이는 필요한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그들을 돕기 위하여 파견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사단의 최초의 암시를 단호히 물리친다면, 그들은 하늘의 사자들처럼 안전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저들의 본성은 너무도 타락하게 되어 그들 스스로 사단을 저항할 능력이나 의향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었다.](부조와 선지자 53)

증언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선한 천사들은 에덴에서 시조 부부에게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에 대하여 충분히 경계하였다. 그들은 루시퍼가 천사의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지 모른다. 그런데 루시퍼는 사람보다 월등한 존재였다. 그는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짐작하고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기발한 발상으로 사람에게 접근하였다.

바로 뱀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동물 중에서는 가장 화려하게 창조된 동물인 뱀은 사단의 매개체가 되어서 여자에게 접근하고 사단은 그의 능력으로 뱀이 말하게 하여 여자를 유혹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여자는 뱀이 접근할 때 순진하게도 대화하였다. 이상한 생각을 했을 것이지만 그것이 루시퍼의 영매였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여자는 뱀의 말에 순진하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하였고 그의 제안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

살아남는 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에게 자세히 경고하신 것을 알 수 있다.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 가까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당신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의 담보물이 되도록 특별히 계획하셨다. 이 나무를 두고 주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한 나무 외에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로 먹을 것이나 만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저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셨다.](살아남는 이들 24)

이미 부조와 선지자에서 본대로 선한 영들인 거룩한 천사들은 아담 부부에게 충분히 경고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친히 두 사람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창세기의 기록에는 이 경고를 들은 사람은 아담뿐인 것처럼 보인다. 창조주께서 창세기 2 장 16,17 절을 말씀하실 때는 아직 여자를 창조하기 전이었다. 여자의 창조는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난 후에 21 절에서 24 절까지 만드신 기록이 있다. 그러므로 여자는

16,17 절의 말씀은 직접 듣지 못한 것이 기록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3 장에 뱀이 여자에게 물었을 때 여자가 대답한 것을 보면 여자도 경고를 들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자는 뱀의 질문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창 3:2,3)고 대답했다.

이 대답에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대답하였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아마도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결혼시킨 후에 그 부부에게 친히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살아남는 이들’에서도 그렇게 증언하였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하면 영들의 싸움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고, 또 악한 영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하여 태초부터 영매를 이용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방법은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

루시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아담이 930 세를 살고 죽었다. 그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런 사실로 뱀을 통해 루시퍼가 한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세상에 폭로되고 우주에도 폭로되었다.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이것이 거짓인 것을 애초부터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죽게 된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말인 줄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죽게 되자 루시퍼는 기발한 속임수를 고안하였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죽을 수 없다는 거짓말이다.

이 주장은 사람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주장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고 그 거짓말이 진실인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정말 너무나 교묘한 거짓말을 창안한 것이다.

사단이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주장한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이미 포함된 것이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죽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는 것을 납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몸은 죽지만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이라는 사상을 나타낸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찾아보겠지만 구약성경에서 점쟁이와 신접한 자들을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보아도 사단이 어떤 거짓말을 또 했는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 거짓말은 역사가 흘러오면서 점점 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난 위력을 떨쳤는데 신약성경에 대하여 말할 때에 자세히 말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셨다.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

오늘날 세상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면서 죽고 싶지 않은 욕망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거짓말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

에덴동산에서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데 성공했고 사람이 죽어나가자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역사에서 귀신들의 활동을 사람들이 체험하도록 나타냈다. 귀신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믿게 하였다.

이런 사상은 국가와 민족들이 신화와 전설과 설화를 만들어 퍼뜨렸기 때문에 부지기수로 온 세상에 가득하다.

에덴동산 사건 후에 나타난 영들의 싸움은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사건으로는 바로의 꿈을 두고 애굽 술객들과 요셉의 대결이 잠깐 보이는 것 같다. 바로가 꿈을 꾸고 그의 고문들인 박수와 술객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다. 요셉이 옥에서 풀려나서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석해 주셨다. 애굽의 술객이 귀신을 의지했지만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창 40:8) 이것도 악령과 선한 영의 대결의 한 장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출애굽기에 가면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니므롯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다. 그의 책 유대 고대사 제 4장에서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는 주동자가 되었다고 하였다. 바벨탑을 쌓기 전에 그는 시날 평지에 사는 사람들을 흑독하게 통치하는 통치자였다. 홍수 후의 이 세상 최초의 왕국의 왕이었다고 한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일을 계획하고 주관하였다고 한다.

바벨탑과 니므롯에 관하여 신화와 전설이 만들어졌다. 이런 전설이 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전설은 니므롯이 죽어서 신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가 신이 되어서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에게 빛으로 찾아와서 임신시키고 아들을 낳게 했다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신화(神話)다. 니므롯이 죽어서 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죽지 않고 신이 되었다는 뜻이다. 바벨탑 이후에 여러 민족들로 나누어지면서 각 민족들이 신화와 전설을 만들었다. 그것은 모두 영혼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사상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다. 만일 사람이 죽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허망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는가? 성경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분명히 계시하였는데(전 9:5) 창조주께서 영감과 계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이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사람에게 대하여 잘 아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런 창조주께서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셨다.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에는 애굽의 술객들과 모세가 대결하는 장면이 기록되었다. 출애굽기 7 장에 있는 내용이다.

아론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을 때 바로는 애굽의 박사와 박수를 불렀는데 그들은 애굽의 술객들이라고 했다. 술객이란 점을 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마법으로 신기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믿었다. 바로도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을 때에 그들을 불러 그들의 술법으로 뱀을 만들도록 명령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들이 사용하는 마법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겠는가? 당연히 루시퍼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술책이다. 이 대결이 하나님과 루시퍼의 대결이 된 것이다.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출 7:10~12) 부조와 선지자에는 “술객들은 실제로 그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큰 사기꾼의 조력을 받아 마술로써 그들은 그렇게 보이도록 할 수 있었다. 사단의 능력으로는 지팡이가 산 뱀이 되게 할 수 없다. 악의 입금은 타락한 천사로 온갖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창조할 능력이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가지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가지신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모조품을 만들어 냈다. 인간의 눈에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었다. 의견상으로 볼 때 그 뱀들은 모세가 만든 뱀과 아무 다른 차이가 없었다. 여호와께서 참 뱀이 거짓 뱀들을 삼키도록 하셨으나 이것까지도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요 다만 모세가 행한 마술이 그의 종들의 그것보다 우월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부조와 선지자 264)

우리는 증언의 말씀을 믿는다. 사단은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것처럼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한 것뿐이지 실제로 뱀이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대결에서 가상을 실제라고 착각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사단은 점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주석가들의 설명도 흥미 있다. “여기서 애굽 술객들은 실제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본래 뱀을 일종의 최면술로 뱀뱀하게 마비시켰다가 던지면서 그 뱀을 다시 원상태로 풀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고대

애굽에서 흔히 성행했던 마술의 일종이었다.”(Pulpit Commentary)고 했다.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때 동원된 애굽의 술객의 이름이 얀네와 얌브레라고 바울이 밝혔다.(딤후 3:8)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였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것이다. 에덴동산에서 뱀을 이용하여 아담 부부를 속인 것처럼 루시퍼 사단은 술객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다.

이 대결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안다. 아론의 지팡이가 된 뱀이 술객들의 뱀을 삼켰다.

이들의 대결은 개구리 재앙까지 이어졌으나 그 다음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재앙부터는 술객들이 할 수 없었다. 개구리 재앙까지 그들이 흉내 낼 수 있었던 것은 악한 영들이 행한 것이다.

악한 영들이 그들의 영매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우러러 보았고 그들의 말을 잘 들었다. 사단은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편에 두었다.

이 대결에서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음 계획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다음 대결은 출애굽기 32 장에 나타난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 일을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24 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아론을 졸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다.

당연히 루시퍼의 충동이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본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선포했다.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경배하며 하던 그 모습을 재현하였다.

이런 것이 영들의 싸움인데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싸움의 양상이 드러난 것이다.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 수 없다. 이런 일로 이스라엘 사람 3,000 명가량이 죽었다.(출 32:28) 루시퍼는 하나님이 이끌어낸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고 흐뭇하지 않았을까?

광야생활 하는 동안 이런 영적 싸움은 내내 계속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마음에 새겨진 애굽 정신이 쉽게 없어지지 않았고 루시퍼는 이런 마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기대하셨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영매와 관련된 사건 중에 가장 뼈아픈 사건은 사울 왕과 엔돌의 무당 사건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것은 사무엘상 28 장에 기록되어 있다. 28 장 4 절부터 마지막 구절인 25 절까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시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은

평소에 악령에게 시달렸다.(삼상 16:15, 16, 23, 18:10) 초기에는 수금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 다윗을 불렀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그 악령이 떠났다. 수금 연주자로 사울을 모신 사람이 다윗이었다. 수금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키노르’인데 반달 형상의 악기였다. 다윗이 만든 악기였을 것이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탔다. 어떤 곡을 연주했는지 모르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거룩한 찬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때 악령이 떠났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정신 때문에 그는 악령에게 완전히 점령당했다.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여쭙었으나 대답이 없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삼상 28:6) 그는 신접한 여자를 찾아 물어보려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런 일이 생기기전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신접한 사람들을 모두 국경 밖으로 쫓아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자신을 완전히 돌이킨 것은 아니었다.

그가 늘 악령의 지배아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접한 사람을 찾게 된 것이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으나 그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했다.

그는 영적 능력을 갈급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자 결국 최악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생각하고 쫓아내 신접한 여자를 찾은 것이다. 사울의 마음과 생애에 선악간의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한 사건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굳어지고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사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악령이 그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그 지배를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수금을 타는 사람을 찾았고 수금을 탈 때 마음이 평정된 경험을 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스스로 반성하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깨달아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했어야 했다.

그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늦게 오자 스스로 번제를 드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떠나고 있었고 마침내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좋은 것들을 남겨놓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고 하는 변명이나, 요나단이 큰 승리를 한 그날 병사들에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물인정한 명령을 내린 사건 등등. 사울은 악령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마침내 돌아올 수 있는 지점을 넘어가버린

것이다. 결국 그가 내어 쫓았던 신접한 여자를 찾아 그에게 조연을 구하여 완전히 하나님을 등진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사무엘이었다. 사울이 이런 정신을 나타낸 것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거짓 사상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가 악령에게 지배받으면서 그런 사상이 굳어졌을까? 아무튼 영혼불멸을 믿은 것이 사실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영혼불멸설을 증명한다고 이 사건을 예로 든다. 사울에게 나타난 사무엘은 죽은 사무엘의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그 교리를 받아 뼈 속 깊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사무엘 모습으로 등장한 형상은 사단이 가장한 것을 당장 알 수 있다. 성경을 읽어보자.

[삼상 28:11~14]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라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12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13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대 14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겹옷을 입었나이대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 구절을 보면 사울은 직접 사무엘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그때 무당은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대.”라고 대답하자, 사울은 “그 모양이 어떠하냐?”라고 물었고 무당은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겹옷을 입었나이대.”라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등장한 형상을 직접 보지 못한 것이 확실하지 않는가. 그는 무당 여자의 말만 듣고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여자는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다고 대답하였다. 여기 ‘신’이라고 번역된 말은 ‘엘로힘’이다.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단어이다. 사단은 무당에게 하나님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다. 무당이 하나님을 본 일이 없었겠지만 그렇게 느끼도록 사단은 그 여자를 감동한 것이다.

또 이 형상은 땅에서 올라왔다고 기록되었다.

만일 사무엘의 영혼이 있었다면 분명히 천국에 갔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왔다고 했다. 사무엘의 영혼이 어떤 땅 속에 있었다는 말인가?

또 만일 사무엘의 영혼이 천국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한 무당, 이스라엘 땅에서 내어 쫓으라고 한 그 무당이 나오라고 해서 나올 것인가? 무당은 천국에 있는 성도의 영혼도 호출할 수 있는 자인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사울이 무당 여자를 통하여 만난 것은 무당 여자에게 사무엘이라고 느끼게 한 사단의 변장이었음이 확실하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세움을 입은 사람이, 왕이 되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감히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하고 나아가서 선지자를 통하여 명백하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종국에는 악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다.

성경은 사울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를 무당을 찾은 것이라고 가르쳐준다.

[대상 10:13,14]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와 말씀의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도 이렇게 영적 속임수로 자기 수하에 들어오게 하였다.

후에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감화에 빠졌지만 사울처럼 이렇게 직접 영매에게 가서 물은 사건은 이것뿐인 것 같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 북으로 갈라졌다. 북쪽 나라는 국호를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첫 임금이 여로보암이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 백성을 남쪽 유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하였다. 대신에 나라의 남쪽에 있는 벧엘과 북쪽에 있는 단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공포(公布)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벧엘과 단에 가서 예배하라고 했다. 루시퍼가 여로보암 왕을 완전히 사로잡아 지배하는 모습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행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경고하였다.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 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왕상 13:7~9)

그랬는데 사단은 사마리아에 있는 거짓선지자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였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선지가 하는 거짓말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왕상 13:18,19)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속았고 결과는 죽게 되었다.

이 사건은 선지자가 자기에게 친히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한 결과를 가르쳐준다. 여로보암 왕이 먹고 마시고 쉬다가 가라고 했을 때까지는 아직도 이 선지자가 선한 영의 감동 안에 있었는데, 거짓선지자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고 할 때 속임수에 빠진 것이다.

사단이 빛의 천사처럼, 사단의 일꾼이 의의 일꾼처럼 나타날 때 비록 택하신 자라도 속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경고의 사건이다.(마 24:24,35)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루시퍼는 이렇게 활동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성경말씀으로 사태를 확인하고 분별해야 하며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 그 선지자는 자기가 직접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하였다. 거짓선지자는 자기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후에 앞에 하신 말씀과 정 바대의 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자기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을 여로보암을 만난 후에 다른 사람을 통해 뒤집어엮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했어야 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런 변덕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기를 쓴다.

이 사건에서 악령 사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정복하는데 성공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확실한 신뢰를 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아담 부부도 같은 수법에 빠지지 않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계시해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철저히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해석하여 그것을 교리와 신조로 가르친다. 그것은 사마리아의 거짓선지자가 하는 일과 같다. 악령이 교회를 주장하게 된 원인이다.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런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신 것이다. 이런 속임수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는 것이다. 악령은 이렇게 일한다. 무속인들을 통해 일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다. 소위 지성인들은 그런 속임에는 잘 넘어가지 않는다. 너무 궁지

몰려 지친 경우에 혹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곳을 찾아 가기도 할 것이다. 특히 선거철에 그런 것 같다. 사울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일을 한다. 그러나 거짓선지자의 속임수 같은 것은 뗏목이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택한 자라도 속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두려운 일이다. 악령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사건으로서 가장 극적인 영적 싸움은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합은 북방 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시돈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았다. 시돈은 바알을 숭배하는 왕국이다.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은 옛바알이다. ‘바알과 함께’ 한다는 뜻이다. 그의 딸을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의 왕이 왕비로 택한 것은 벌써 여호와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사건이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바알 신의 나라로 개혁할 작정을 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왔다.(왕상 18:19) 그들은 왕비의 권력을 배경으로 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을 숭배하도록 바알교를 정착시켰다.

루시퍼는 바알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야가 있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할 때에 분연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름이다.

삼년 반 동안(왕상 18:1, 눅 4:25) 가물었을 때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여호와와 바알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인지 내기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하기로 하였다.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에 모였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평원 끝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발 540m 정도 되는 산이다. 성경에서 아름다움을 노래할 때에 잘 등장하는 산이다. 이 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벌이는데 여호와와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고 바알의 편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이었다.

증명의 방법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었다.

여호와 하나님과 루시퍼의 대결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가 참 신(하나님=엘로힘)이냐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런 대결이 이 사건 외에는 없다.

사단 루시퍼도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다. 계시록 13장 11절~13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양 같이 생긴 짐승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적을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짐승은 루시퍼의 변장이다. 그렇다면 엘리야 당시에 사단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왜 불을 내리는 것을 증명으로 삼았을까?

바알 종교에서는 바알이 불과 비를 다스리는 신(엘로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었다. 그 삼년 반 동안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비를 내려달라고 무수히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허사였다. 백성들은 바알이 비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을 것이다. 가뭄이 오래 계속되고 햇볕이 너무 뜨겁게 내려쬐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이 노해서 불멸만 내린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래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는 증명으로 제안한 것이다.

필자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바알로 변장한 루시퍼가 얼마나 속이 탔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삼년 반 동안 루시퍼는 철저히 패배하였다. 그런데 오늘 그 패배를 한번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아니겠는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 앞에서 벌인 한판 전쟁이었다. 하늘에서 패배한 루시퍼가 세상에 와서 세상을 속이는 것을 온 천하에 폭로하는 사건이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이다. 거룩한 능력이 루시퍼를 꼼짝 못하게 묶어 놓은 것이다. 아마도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바알을 부르며 애를 쓸 때 루시퍼가 불을 내리려고 얼마나 용을 썼겠는가?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적수가 아니었다. 참담한 패배를 당한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종말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것을 표상하는 역사적 사건이다.(계 16:12~21) 루시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을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대신에 루시퍼를 숭배하도록 한 것처럼 역사의 종말에도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할 것이며 종내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속일 것을 예언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그러나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옛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혼불멸을 믿지 않고 오직 죽은 자의 부활을 주관하시는 참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엘리야의 이름이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옛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표징이 제 7일 안식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옛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되며 그들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영적 투쟁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이름을 가진 신이 하는 것이라도 그 배후는 오직 루시퍼 일당들이다.

아합은 이런 일만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사건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 이것은 직접 영매에게 물은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는 여호와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단의 선지자로 영매 노릇을 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열왕기상 22 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합 왕의 사건에서 볼 수 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은 사돈인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방문했을 때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하여 전쟁하자는 제안을 한다. 여호사밧이 동의하자 전쟁하러 나갈 준비를 하려는데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어서 결정하자고 제안하자 아합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400 명의 자기 선지자들을 불렀다. 그들은 다 여호와와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었다. 그 400 명이 한 소리로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미심 적어서 이외에 선지자가 없는지 물었다. 아합은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는 선지자라고 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했다.

아합은 하는 수 없이 미가야를 불렀고 미가야는 하나님 보좌 앞에 영들이 모여 회의하는 장면을 계시로 보았고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 여호와께서 누가 가서 아합을 꺾어 죽게 할 것인지를 물었을 때 많은 영들이 의견을 제출했으나 다 안 되고 한 영이 나와서 자기가 꺾겠다고 하자 어떻게 꺾겠는지 물었다. 그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선지자들 입에 있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자 그는 일하러 떠났다.

결국 400 명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영들의 말을 한 것이다. 문제는 그 400 명이 스스로 여호와와 선지자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주관한 것은 거짓말하는 영들이었다. 곧 사단의 영이고 여호와 앞에 나타났던 것은 루시퍼였다. 그가 하나님의 어전에 나타나 거짓말하는 영 노릇하는 것을 허가받았다.

말하자면 400 명은 아합에게 영매노릇을 한 것이다. 루시퍼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예언하는 400 명을 자신의 영매로 부린 것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꾼 빛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바울은 사단의 일꾼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나타낸다고 경고했다. 가장한다고 표현했는데 스스로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장시키는 것이다.

루시퍼의 영들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 안에서도 활동한다. 그렇게 사로잡힌 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지만 그 해석을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영매들이다. 영혼불멸을 믿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다 영매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합과 미가야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는 사건이다. 400 명 중 대표자격인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왕상 22:24)하고 소리쳤다. 그는 미가야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는 여호와와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아합이 전쟁을 위하여 선지자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은 사울이 엔돌의 무너를 찾아간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엔돌의 무너는 그가 신접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였으나 아합의 400 명 선지자는 자기들이 여호와와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영매노릇을 한 것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주의 여종을 통하여 이렇게 가르쳐주신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가버나움의 광인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악령이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경우에는 그가 경건의 모습을 가장하고 나타나 구주를 거절하는 그들의 동기에 대하여 그들을 기만하려고 하였다. 그들의 형편은 귀신 들린 자의 그것보다 더 희망이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세력 아래 단단히 붙잡혔기 때문이었다.”(시대의 소망 256)

사단이 영매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방해하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영매를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주셨다. 모세의 글에 점쟁이와 신접한 자와 박수와 술객들을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되면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이다.

영매들은 사단의 교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 교리를 진짜인 것처럼 선전하는 사단의 전도사들이다. 그들이 세상에 있으면 사람들은 그들을 통하여 죽은 사람의 영혼들과 교통하면서 참으로 사람이 몸은 죽어도 그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믿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과 직접 만나고 대화한다고 주장하며 그런 상황을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영매를 이용한 사단의 속임수이다. 뱀을 통하여 시조 부부를 속인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기도인연합 미성경연구 연결망 안내

오늘 이 메일을 받은 분들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자신의 배움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여 차후 이웃에 전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인물이나 사건 중심으로, 또는 표면적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의 중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오직 믿으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 알거나 참된 깨달음없이 맹목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성경을 바르게 경험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 지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성경의 중심되는 내용을 산 경험과 함께 제시됨을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산 경험이라

함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화로 받아 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험에는 세상이 줄수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귀한 경험을 위한 성경연구 모임을 미(MEE) 성경 연구로 칭하는데 모세 (MOSES), 엘리야 (ELIJAH) 그리고 에녹(ENOC)의 영문 이름 첫 자를 딴 것입니다. 모세 엘리야 그리고 에녹은 살아 승천하였거나 죽었어도 부활하여 지금 땅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현재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주 재림을 소망하며 마지막 시대 주어진 사명에 함께 진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잃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잠잘때 생명없는 상태를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잠이 들때 죽음과도 같은 무의식에 들어갑니다. 그 무의식속에는 선도 악도, 부와 빈도 아무런 차이도, 그것들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잃은 생명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잃은 생명에게는 온 세상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값으로 따질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상상의 한계를 넘습니다. 그런데 2 천년전의 예수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나 결국 그 생명을 가르치는 성경이 예수를 가르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영원한 생명은 예수에 대한 체험적 믿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적 믿음은 다가오는 그분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중단없이 지속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미성경연구 모임의 확산을 통해 함께 알리고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신앙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들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학문이 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학문을 이해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를 구하고, 또 무엇이든 받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써야 하는 것이다. 이 조건들이 이행될 때에는, 허락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Ed 257.7)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 구하게 될 것이며, 계속적인 필요와 의뢰심이 생길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는 각각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나, 영적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히 교제하는 일이다. (Ed 258.3)

미 성경연구 내용

마지막 시대를 위한 성경과 예언의 신의 이해 및 간증을 포함한 말씀

미 성경연구 참여 방법

북미서부 지역모임:

미서부그룹-1: 2018 년 미서부 지역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후 8 시 (미서부 시간)에 40 분 동안 진행되며 직접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컨퍼런스 번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12) 775-7035 / 액세스 코드: 889722#

미서부그룹-2: 미국인 기도회원 또는 영어가 가능한 분들을 위해 영어로 진행되는 모임이 매주 목요일 오후 8 시 (미서부 시간)에 50 분간 있으며 아래 번호를 사용합니다.

(818) 273-1108 (엑세스 코드 필요없음)

또한 해외에서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성경연구 모임 소식을 이메일을 통해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성함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성경연구: meebible@prayercoalition.com

문의 전화: 253-326-6451

그외 미 서부 그룹, 동부 그룹,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기타 지역 그룹 모임은 모임이 준비되는대로 추후 발표합니다.

미 성경연구 연결망 (MEE Network) 참여

정기적으로 미성경연구에 참여하는 단체 및 성경연구 그룹들이 함께 모여 연구발표 및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참여하기 원하는 그룹의 대표자는 위의 이메일 주소로 순서 날짜 및 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인연합 회보는 각 교회의 기도모임 소식을 전하며 재림교회 성도들의 연합기도를 권장하는 단체인 기도인연합의 공식회보입니다. 새로 이메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름과 전화번호 소속교회 및 간단한 소개를 하여 admin@prayercoalition.com (제목: subscribe)으로 보내시면 메일리스트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언제라도 이메일 받기를 원치 않을경우 제목: unsubscribe 로 하여 보내시면 메일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이 회보 내용에 관한 의견 또는 문의는 editor@prayercoalition.com 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인연합/ 연합기도운동 안내

우리들과 교회의 영적 각성이 어느때 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관계 회복이 시급함을 자각하며 2007년 8월 9일 시작된 연합기도운동이 2007년 8월 26일 2차 모임을 시작으로 미주와 해외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간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 5:17, 단 10:12) 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때 우리의 교회일은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의 봉사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고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연합기도운동에 교회에서 단체로 또는 개인으로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미서부: 253-326-6451 • 626-665-8445 / 동부: 440-600-1857 • 336-340-9274 / 한국: 033-763-1054
/ 일본: 03-5604-5125 / E-mail: info@prayercoalition.com



TEL: 619-758-4006 • FAX: 858-909-8214
Prayer Coalition P. O. Box 1216, Delano, CA 93216-1216
Email: admin@prayercoalition.com Web: prayercoalition.com